

왕생가류 불교 가사의 표현 방식과 세계 인식

전제강*

〈차례〉	
1. 서론	
2. 문장과 수사의 표현 방식	
1) 문장 사용의 방식	
2) 수사 구사의 방식	
3. 이원 대립의 일원 지향적 세계 인식	
1) 이원 대립의 체계성	
2) 일원 지향의 내재성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왕생가류 불교 가사의 표현 방식과 세계 인식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먼저 표현 방식에서는 문장의 사용 방식과 수사 구사의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서법상 다섯 가지의 문장 종류 가운데 의문문과 감탄문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의문문은 부정 또는 긍정의 세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修辭疑問文으로 주로 사용하였고 일부 시적 대상 인물을 힐책하는 反問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감탄문은 극락 세계와 관련된 긍정적 대상을 찬탄하고 사바 또는 지옥과 관련된 부정적 세계 현실을 한탄하는 데 사용되어 양자의 성격을 부각하는 기능을 했다. 다음으로 많은 평서문은 불교 교설과 같은 객관 사실을 단정하여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명령문은 구체적으로 특정 덕목을 실천하거나 금지시킬 때, 청유문은 포괄적으로 극락과 같은 긍정 세계로 나갈 것을 권유할 때 주로 사용했다. 그리고 수사법으로는 대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병렬법, 비유법이 부차적으로 구사되었다. 대조법은 극락과 그 관련 세계의 정렬함을 부각하고

* 안동대학교

사바나 지옥의 참상을 폭로하며, 병렬법은 대립적 두 세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나열하여 긍정·부정적 측면을 증명하여 강화하는 기능을 각각 수행했다. 특히 비유법은 사바의 부정적 성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었다. 문장과 수사를 통하여 부각한 이원대립의 세계는 극락과 사바 또는 지옥이라는 공간 대립, 부처와 중생이라는 인물 대립, 세속 욕망과 염불이라는 행위 대립의 체계성을 보여 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부수하는 정서나 현상 등의 대립을 더 보여 주어서 표면적으로 왕생가류 불교 가사에는 이원대립적 세계 인식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이원 대립의 전제와 결과로서 일원 지향적 세계 인식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었다. 염불을 통함으로써 부정적 세계를 버리고 긍정적 세계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사바나 지옥인 부정의 세계가 본래 극락과 하나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논리를 작품 이면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염불 수행이 형상의 서방극락을 찾아 가거나 중생이 그와 별개인 부처를 닮아 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극락에 거주하는 본래 부처가 있고 있던 자기의 세계와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왕생가류 불교가사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핵심어 : 불교 가사 유형, 왕생가류 불교 가사, 문장 사용 방법, 수사 방법, 이원적 세계 인식, 일원적 세계 인식

1. 서론

불교 가사는 내용이 주로 종교적 이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술이라는 가사 문학의 중요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여겨져 왔다. 실제 일반 사대부 가사나 규방 가사, 서민 가사에 비하여 불교 가사가 교술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교가사가 종교 가사로서 가지는 여러 국면상의 고유한 특징을 교술성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만 간단히 언급하고 간과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교술갈래의 성격에 근거하면서 보여주는 불교가사의 다양한 하위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가사의 구체적 본질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개별 작가의 불교 가사 작품에 대한 연구와 함께 불교 가사 내부에 뚜렷이 드러난 하위 유형들의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불교가사가 가지는 다양한 구체적 성격을 규명하고 나아가 가사 문학 전체 특성을 귀납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불교 가사의 하위 유형은 불교라는 종교 사상의 존재 방식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익히고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생을 살피고 교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런 과정의 실천 과정에는 우선 출가와 수행이 있어야 하며, 중생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화 행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출가와 관련하여 보면 가장 먼저 실행할 것이 입산하여 수행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 공간인 토굴을 다룬 토굴가류 불교 가사가 여러 수 나타남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본격적 수행에 앞서 세속에서 가진 미망의 마음을 돌릴 것을 강조하는 회심곡류나 삶의 허망함을 일깨우는 동환가류, 誓願을 세우고 수행에 나서는 다짐을 담고 있는 발원가류,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으로서 참선 수행을 다룬 참선가류, 엄불 수행을 주로 다룬 엄불가류, 고통의 이 세상을 떠나 정도에 가려는 의지를 담은 왕생가류, 가사 교주를 칭송하는 불찬가류, 그리고 불교의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로서 불교 수행 공동체 유지에 소유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승려와 일반 대중에게 유포했던 모연곡류 등이 나타난다.

이에 필자는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왕생가류 불교 가사(를 표현 방식

1) 왕생가류 불교가사는 극락왕생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불교 가사 작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엄불이나 참선과 같이 특정 수행 방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엄불을 하더라도 왕생을 위하여 한다는 점에서 왕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내용의 작품을 이 유형에 드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만족한 작품을 들어 보면 <普觀念佛文本西往歌>, <朝鮮歌謠集成本西往歌>, <勸往歌>, <往生曲>, <釋

과 세계 인식의 두 가지 향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은 서법상 문장 종결의 방식이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문장을 왜 사용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이 유형의 작품들은 특징의 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가가 말하는 수행의 방법이나 지시를 수월하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표현 방법상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주는 문장 사용 방식과 수사의 구사 방식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작품 표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하여 왕생가류 가사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세계 인식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중생과 부처, 사바와 극락세계 등을 대비하여 세계 인식의 이원성을 보여 주면서도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사바가 바로 극락이라는 일원적 세계 인식을 내재적으로 담고 있어서 이들 상호 관계의 질서를 논의함으로써 왕생가류 불교가사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논의에 사용한 자료는 각 원전²⁾에 실린 작품들과 『불교가사 원전연구』³⁾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2. 문장과 수사의 표현 방식

표현 방식은 다양한 하위 분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門儀範本夢幻歌>, <遷魂往生極樂歌>, <龍成禪師往生歌>, <鷓鴣禪師往生歌>, <六甲十往願佛歌> 등이 있다. 제목으로 보아 <釋門儀範本夢幻歌>, <誌公和尚勸世念佛歌>는 해당이 없는 듯하나 내용은 왕생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여기에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박희선 편역, 『학명근스님 평전 원학의 울음소리』, 불교영상회보사, 1994. 1-328쪽./연관 편역, 『학명집』, 성보문화재단연구원, 2006. 1-195쪽./용성진중, 『각해일문』, 대각회 출판부, 1990. 1-216쪽./용성진중, 『수심본』, 대각회 출판부, 1978. 31쪽./용성진중, 『귀원정중』, 1-195쪽./용성진중, 『용성선사어록』, 대각회 출판부, 1973. 1-100쪽./

3)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0. 1-1155쪽.

문장 사용 방식을 내용과 연관하여 살피고,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구사한 비유나 대조 등의 수사법상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서법상 특정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규명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수사법의 경우는 문장 사용 방식을 기초로 교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함으로써 왕생가류 불교가사의 표현 방식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문장 사용의 방식

여기서는 서법상의 문장이 왕생가류 불교가사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왕생가류 가사 작품은 서법상의 문장을 내용에 따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청유나 명령을 통하여 시적 대상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내용을 드러내어 강조하기 위하여 설의 의문문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칭송의 필요나 탄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탄문을 구사하기도 하고 분명한 사실과 특정 내용을 단정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평서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장 사용의 사례를 구체적 예를 들면서 살피고자 한다.

- (1)부모의 기친얼골 주근후에 속절업다 -중략-4)
- 제산은 께뻘하고 스상산이 더욱 높다 -중략-
- 지혜로 비를 무어 삼계마다 건네리라 -중략-

<普勸念佛文本西往歌>

- 대승경전 독송하고 이극락에 나왓노라 -중략-
- 그 가운데 성도하니 우리도사 아미타라 -중략-
- 내외중간 모도 업서 죄성이 공적하다 -중략-
- 비록 인간 잇사오나 발서 극락백성이라 -중략-

4) 해당하는 예문만 보이고 여기서 생략된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인용하여 거론하고자 한다.

<勸往歌>

- (2)반일긋지 아프시니 이 아니 거룩한가 -중략-
- 이 몸이 무상한줄 어리그리 모로는가 -중략--
- 반공고조 무량고를 다시므엇 연륜홀가 -중략--
- 인간으로 나올 귀약 망연하고 아득하니 이 아니 놀랍소 -중략-
- 신심업는 등집등을 엇지제도 홀흔손가 -중략-

<왕싱곡>

- 만반고통 뿐일지니 그도안이 몽환인가 -중략---
- 보살도를 성취하니 대각세존 이 아닌가 -중략---
- 일구원심 공부하면 이극락에 아니갈까 -중략---
- 죄업짓는 저중생이 그 아니 불상한가 -중략---
- 불보살의 대원인들 무슨도리 잇겠는가 -중략-

<釋門儀範本 夢幻歌>

- (3)자세자세 생각하니 남가일몽 꿈이로세 -중략-
- 흠이 되고 바람되니 일필황피 념새나네 -중략-
- 무덤팔적 기리한길 생각하니 허망하네 -중략-
- 마음심자 무섭구나 공부하면 깨친다네 -중략-

<지공선사권세연불가>

- 삼계류회 화택이오 룩도왕래 고해로다 -중략-
- 원각적멸 둘이 없어 처처극락 즐어워라 -중략-
- 물우에든 거품이요 바람에연 등불일세 -중략-
- 영겁생사 끊어지면 불생불멸 즐겁도다 -중략-

<용성선사왕생가>

- (4)가뵈시다 가뵈시다 조흔국토 가뵈시다 -중략-
- 천상인간 두어두고 극락으로 가뵈시다 -중략-

<학명선사왕생가>

- 자비하신 원력으로 굶어살피 주음소서 -중략-
- 고통바다 헤어나서 열반언덕 가사이다 -중략-
- 몸으로써 지은죄에 살생죄를 짓지마소 -중략-
- 일심으로 엄복모셔 극락으로 가뵈시다 -중략-
- 선심하고 마음뒹아 불의행사 하지마소 -중략-

<육갑시왕원불가>

(1)에서는 평서문의 사례를 들어 보았다. 먼저 <보권서왕가>⁵⁾에서 평서문의 내용을 차례대로 보면 ‘거친얼굴 주근후에 속절없다’고 하여 이 문장 바로 앞에서 감탄문을 통하여 전체한 無常의 구체적 한 현상을 평서문으로 단정하여 나타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사상 산’이 높다는 불교 교설, 그 다음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의지를 각각 나타내는데 평서문을 사용했다. 다음 <권왕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극락에 오게 된 사연을 자신 있게 나타내는 것을 시작으로 여래, 아미타를 소개하고 죄성의 공격함, 사상, 극락 백성 등 불교 교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데에 평서문을 사용하고 있다. 즉 평서문은 불교에서 말하는 교설을 단정적으로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중생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불교의 교리, 귀의 대상인 여래나 아미타의 존재에 대한 소개가 중심을 이룬다.

(2)는 의문문의 사례들인데 <왕생곡>의 예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문장은 주어인 일체불이 중생을 제도하며 아파하는 것을 두고 거룩하다고 강조하는 데에 의문문을 사용한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중생이 이 몸의 무상함을 모르는 것, 이어서 한량없는 고통, 윤회, 신심 없는 중생 등의 부정적 실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석문몽환가>의 경우를 보면 만만 고통, 대각세존, 공부와 극락, 중생, 불보살의 대원을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장명필과 백종기예가 임종에는 고통밖에 없어서 몽환이라 강조하고, 대각세존이 바로 이분이라는 점, 공부하면 반드시 극락에 간다는 것, 죄업 짓는 중생의 불쌍함, 불에 들어가는 중생은 불보살도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의문형의 문장은 무엇을 몰라서 알기 위하여 질문하는 순수한 의문문이 아니라 문면에 나타난 것과는 반대의 의미를 의문형으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설의적 의문 형식을 취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왕생곡> 두 번째 문장에서

5) 앞으로 작품명을 말할 때 편의상 줄여서 원작품명의 맨 앞 단어와 맨 뒤 단어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普勸念佛文西往歌>의 경우 <보권서왕가>로 줄여서 사용하고 나머지 작품들도 마찬가지이다.

‘-어이그리 모르는가’라고 힐책을 위해 반문하거나 <왕생곡> 마지막 문장에서 ‘-엇지제도 흑울손가’라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일반 의문문이 일부 나타나고 대부분의 의문문은 문면의 의미와는 반대로 ‘거룩하며, 언론할 것이 없으며, 놀라우며, 몽환이고, 대각세존이며, 극락에 반드시 가며, 불쌍하며,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설의적으로 강조하는 데에 의문문이 사용되었다. 이를 내용과 관련해 보면 중생의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주로 부각하고 여기에 귀의처로서의 세존이나 아미타불을 칭송하며 수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의적인 의문문을 구사하였다.

(3)에 보인 문장은 다양한 모양의 감탄문의 종결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지공염불가>에서 ‘-로세, -네’, <용성왕생가>에서 ‘-로다, -워라, -일세’ 등의 감탄 종결어미를 사용한 문장 결구를 볼 수 있다. <지공염불가>는 감탄문을 먼저 인생의 무상함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다음은 죽어서 육신이 사대로 흩어지면서 냄새 나며 가게 되는 무덤을 묘사하고 이 작품 끝 행에서는 공부하면 반드시 깨친다는 것을 주장했다. 유한한 존재의 현실을 감탄의 문장으로 표현하다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마지막에 감탄문으로 표현하여 절망을 극복할 길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용성선사왕생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감탄문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첫문장에서 인생이 고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이어서 극락의 즐거움을 제시하고, 일체가 무상하다는 것을 말하고, 이어서 불생불멸의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감탄문으로 인생의 무상함과 불생불멸의 즐거움을 대비하여 정서적으로 후자를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요컨대 감탄문은 긍정적 내용을 찬탄하고 부정적 내용은 한탄하는 기능을 하여 부정을 거부하고 긍정을 지향하게 하는 정서적 자극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4)에서는 청유문과 명령문을 동시에 제시했다. 함께 행동할 것을 종용하거나 행동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다 시적 대상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계에 놓이는 것이어서 여기에 함께 다루었다. <학명왕생가>에서는 ‘가뵐시다’라는 짧은 청유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마치 민요의 AABA의 형식과 같은 문장 배열을 통하여 박자감을 살리면서 이 문장 뒤에 제시할 내용을 함께 따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육갑원불가>에서는 ‘가사이다’, ‘가읍시다’와 같이 청유문의 결구를 보이는 문장도 있고 ‘주읍소서’, ‘짓지마소’, ‘하지마소’와 같은 명령문의 결구를 보이는 문장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런데 청유문의 경우에는 ‘조흔 국토’, ‘극락’, ‘열반언덕’ 등과 같이 이상향으로 나아갈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고, 명령문은 불법승 삼보에 뭔가 요청을 할 때나 ‘살생죄’나 ‘불의행사’와 같이 구체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금지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상 세계로 나갈 것을 권유하거나,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령할 때에 청유문과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다.

왕생가류 불교 가사 전체 9편의 작품 400여 문장 가운데 의문문과 감탄문이 각각 28%, 29%를 차지하고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이 각각 20%, 17%, 6%의 빈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장 사용의 실태는 왕생가류 불교 가사가 설의나 반문을 통하여 내용을 강조하면서 부정적 내용을 한탄하고 긍정적 내용을 찬탄하는 정서적 표현에 주로 기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래서 더 일반적인 평서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보여주게 되었다. 명령문이 청유문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난 것은 구체적 덕목을 실천하도록 명령하거나 금지 사항을 못하게 시키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며, 청유문이 가장 적은 것은 왕생을 하자는 것과 같이 포괄적 행위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2) 수사 구사의 방식

왕생가류 불교 가사에는 여러 가지 상호 대비 되는 내용을 병치하여 시적 화자가 의도한 세계로 시적 대상을 끌어가려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낸다. 또한 이를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설의법이나 비유법을 적절히 구사하며, 시적 화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

기도 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대조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나머지 수사법의 경우도 작품의 전체 질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삼세 제불은 이모음을 아문시고
 녹도 중싱은 이 모음을 저브릴시 -하략-
 <보권염불문본서왕가>

확탕노탄 저 지옥에 화살갓치 들어가서
 만반고통 바들적에 모은제물 가져다가저지옥에 인정줄가
 만사 만생 대고통을 어느 때나 버서날고 -중략-
 화장마다 견거가서 극락 세계 들어가니
 황금누각 지어놔고 칠보지 사색연화 곳곳이 피어있고
 가지가지 보배남기 칠보당을 들녔스니 구경하기 더욱욱타
 <조선가요집성본서왕가>

(6)부모되고 죽식되는 스이 어니죽식 더 귀히며 어느죽식 털귀홀가
 귀히기는 일반이나 젓달라고 우는 자식 첫살쥬어 먹게하고 -중략-
 젓도 밥도 아니 달라하고 울지도 앓고 노는 子息 젓을 주며 밥을 줄까
 <왕싱곡>

천청에 밝은 달이 청강수에 빛치오나 달이실로 온배업고
 물도실로 아니가되 강수가 정청고로 밝은 달이 나타나네
 만일물이 흐리오면 달그림자 업서지니
 물의정탁 탓이언정 달은 본래 거래 없네
 <권왕가>

(7)이몸이 옥긔타여 탐욕의 락인빅요
 이몸이 성긔터여 나찰귀의 굴헐이요
 이몸이 송강갓터여 독스의 밥이며
 327<왕생곡>

제일전에 진광대왕 진광대왕 메인생은 경우감이 상갑인데 -중략-
 제이전에 초강대왕 초광대왕 메인생은 무자감이 상갑이라 -중략-
 제삼전에 송제대왕 송제대왕 메인생은 임오감이 상갑인데 -중략-
 <육갑시왕원불가>

(5)의 <보원서왕가>는 중생과 부처를 대비하고 있다. 부처와 중생은 마음을 아는가 저버리는가에서 나누어진다고 했다. 생략된 아래 부분에서 ‘생각해서 마음을 깨쳐 먹고 태허를 생각하고 화장 바다를 건너지어 극락 세계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극락세계에 들어가 펼쳐진 모습을 이어서 서술하고 있다. ‘칠보금지에 칠보망이 둘러 있고 구품연대에 엄불소리 울려 퍼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대비는 중생이 마음을 깨쳐 극락에 가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엄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사법이다. (5)의 <조선서왕가>에서는 지옥과 극락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부와 같이 문장을 바로 마주 대응시키지는 않고 작품의 전개 과정에서 먼저 부정적인 지옥을 소개하고 이어서 긍정적인 극락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지옥을 말하면서 사자에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에서부터 만 번 죽고 만 번 사는 지옥의 고통을 ‘아이고 답답 설움 이야 저 고통을 어이할꼬’라는 탄식의 문구를 사용하여 절실하게 표현했다. 이어서 이런 부정적 정황에서 드디어 출가를 하고 엄불을 하여 극락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無上樂을 즐기는 극락의 광경을 보여주어 자연스럽게 극락에 가기 위한 엄불에 나서도록 단락을 배치하고 있다.⁶⁾

(6)의 <왕싱곡>은 부모가 자식을 차별 없이 귀하게 기르는 것을 옳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젓과 밥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자식에게 젓과 밥을 줄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바로 부처와 중생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대자대비 부터님이 등싱 제도 호소심도 이와 갖치 다름 업서’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터님의 등싱제도 승속남녀 노소업시 너지우마 육축까지 제도코즈 호시지만’이라고 하여 부처가 중생에 대하여 차별 없이 대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신심

6) 중생과 부처, 지옥과 극락이라는 불교의 대표적 개념의 대조뿐 아니라 대조적 대상의 제시는 이외에도 더 다양한 것들이 있다. 무환과 극락(489), 하열심과 아만심(298), 선과 악(88, 804), 세간과 엄불(90), 탐물과 엄불(85), 유투락과 무투락(88), 탐물과 선근(91), 계행수도와 엄불(752) 등이 나타난다. (*여기 표기된 숫자는 일기중의 『불교가사 원전연구』(동국대학교 출판부, 2000)의 쪽수이다.)

없는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라는 것이다. 부처 중생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가 뒤에 가서 ‘갖치’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여 직유법을 병용하고 있다. (6)의 <권왕가>에서는 달과 강물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것 역시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인용문 다음 생략된 가사를 더 들어 보면 ‘이도 또한 이갓하야 내마음이 호린고로 불신을 못보다가 임종일림 밝은고로 불월이 나타나니/내마음이 청탁이치 불은 본래 거래없네.’라고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의 관계를 살펴 보면 인용문의 달은 불신을, 강물은 내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강물에 청탁이 있지 달은 본래 있듯이 마음에 청탁이 있지 불신은 본래 있다는 비유를 통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⁷⁾

(7)은 반복법과 병렬법이 사용된 예이다. 앞부분의 <왕싱곡>을 보면 ‘이몸이’로 시작되는 문장을 세 번 반복하고 있는데 생략한 것까지 합치면 열 번에 걸쳐서 ‘이몸이’를 반복하고 있다. 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성격 열 가지를 나열하여 병렬법을 사용하고 있다. 몸이라는 같은 대상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몸의 특징을 나란히 배치하는 표현방법을 보이고 있다. 그 나열된 몸의 특징을 차례대로 보면 여기 제시된 獄, 城, 송장, 허환, 물거품, 꿈, 버섯, 초개 등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그 뒤 <육갑원불가>를 보면 앞부분과는 다소 다르게 반복과 병렬의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왕싱곡>이 문장 수준에서 반복법과 병렬법을 구사하고 있다면 <육갑원불가>는 단락의 수준에서 반복법과 병렬법을 구사하고 있다. 인용한 부분을 보면 제일전, 제이전, 제삼전의 대왕과 매인 생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생략한 부분까지 들어 보면 각 전마다 지옥을 소개하고 무슨 죄를 짓지 말고 참회와 엄불을 통하여 극락에 갈 것을 요구하는 구성을 반복하고 있다. 즉 각 단락은 대왕, 매인 생, 지옥, 죄, 참회와 엄불을 통한 극락왕생

7) 비유는 이외에도 ‘천년의 잠(753), 잠을 깨다(303, 752), 달팽이 뿔(279), 大悲船(753), 푸춧간소(979), 화살(89)’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비유들은 ‘大悲船’이라는 왕생의 방편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인생의 무상함이나 어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라는 순서의 구성을 반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런 반복하거나 병렬하는 수사법을 구사하는 경우는 더 나타난다. <권왕가>에서 어떤 공덕을 짓고 자신이 극락에 오게 되었는가를 반복하여 소개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엄불시킨 공덕으로 이 극락에 나왔노라’를 시작으로 ‘십선업의 수행, 사성존계 예배, 병든 사람 지성으로 구원, 십립 엄불’ 등 극락에 오게 된 공덕을 다양하게 같은 단락구조를 반복 나열하면서 소개하고 있다. <권왕가> 중반부에서는 십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고 열 가지 악업을 하나씩 제시하며 범하지 말 것을 열 번에 걸쳐 명령하여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권왕가> 후반부에서 극락왕생의 사례를 22회에 걸쳐 소개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하여 왕생을 증명하고 있다. <왕성곡>을 보면 위에 인용한 바로 뒤 부분에서 무상함의 역사적 사실을 진시황, 초패왕, 전륜왕, 불노신, 현인, 작복인 등의 예를 나열하여 읊고 있다. <원혼왕생극락> 후반부에서도 ‘화만진구 모든스대를 공득수에 모옥하고’로 시작하여 ‘더운 것, 주된 배, 마른 목’을 각각 ‘휴헐하고, 포만하고, 해갈하고’라고 하여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병렬의 수사를 구사하고 있다.

반복을 통한 병렬의 수사는 긍정하거나 부정할 내용 가운데 특히 강조해야 중생의 무상함과 극락의 영원함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왕생가류 불교 가사에 사용된 수사는 부정적인 내용은 절대로 금지하고 긍정적 내용은 반드시 실천에 나가게 하는 추동력을 동시에 발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이원 대립의 일원 지향적 세계 인식

위에서 살핀 표현 방식을 통하여 작가가 보이고자 한 세계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현 방법상 문장 종결이나 수사법상에 나타난

특징들은 주로 이원 대립의 세계인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게 묶어서 긍정과 부정의 대립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부처와 극락, 선업이 긍정의 편이라면 중생과 지옥, 악업 등이 부정의 핵심내용이다. 긍정을 따르고 부정을 벗어날 것을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왕생가류 불교 가사의 기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이원 대립적 세계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원적 세계 인식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이원 대립의 체계성

왕생가류 불교 가사에 나타난 이원 대립의 대표적 내용은 중생과 부처, 지옥과 극락, 악업과 선업이라는 기호로 표현된다. 또한 여기에 관련하여 다양한 이원 대립의 세계가 나타난다. 이런 이원 대립의 항을 구성하는 구체적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더 있으며, 이들이 세계 인식의 어떤 기본 질서에 의하여 서로 관계 맺고 있는지를 살피므로써 이원 대립의 항에 나타난 세계관적 인식의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왕생가류에 속하는 9편의 작품은 모두 이원 대립적 용어를 어떤 방식으로든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원 대립이 일정한 체계성을 보이고 있다. 지옥과 극락과 같은 공간의 대립, 중생과 부처와 같은 인물의 대립, 선행과 악행과 같은 행위의 대립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 외에도 특정 현상, 마음이나 정서, 일 등을 두고 대립항이 더 나타난다.

(8)극락은 멀어지고 지옥은 갓갑도다

<조선가요집성본서왕가>

화택제자 구원할제 성교중에 이룬말삼
십만억도 서편쪽에 극락이라 하는 세계

<권왕가>

이제라도 잠을깨야 몽환세계 탐착말고
시시때때 엄불하여 저극락에 어서가세

<석문의범본문왕가>

(9)악한사람 수업스며 선한사람 하나업다

<조선가요집성본서왕가>

삼세 제불은 이 마음을 아르시고
늑도 중생은 이 마음을 저버릴시

<보권염불문본서왕가>

우리세존 대법왕이 백천방편 베푸시다 황택제자 구완할계 -중략-
시방세계 염중생 임명중시 당하오면
아미타불 대성존이 그 중생을 다리다가 연화중에 환생헌이

<천혼왕생극락가>

(10)지은죄를 생각하여 참회심을 이룩겨서

이참사찰 두가지로 삼보전에 참회하소 -중략-
병이비록 중하여도 귀신에게 빌지마오 -중략-
사람중생 물론하고 죽는자를 만나거든 부대염불하여 주오

<권왕가>

월장경에 하신 말씀 말세중생 억억인이
계행수도 할지라도 득도할니 하나없고
다행발심염불하면 극락간다 하였으니

<육갑시왕원불가>

(8)을 보면 먼저 <조선서왕가>에서 지옥과 극락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극락은 멀어지고 지옥이 가까워진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이 문장의 앞에서 ‘염불한번 아니하고 세간만 탐착하여’서임을 밝혔다. 극락이 왜 좋은가는 이 문장의 뒤 부분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권왕가>에 오면 지옥과 극락의 대비에 그치지 않고 화택과 극락을 대비하기도 한다. 火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三界火宅이라고 하여 육계, 색계, 무색계가 모두 불난 집이라는 말이다. 죽어서 가는 극락이나 지옥이 아니라 중생이 사는 세 가지 공간이 삼계인데 그 삼계를 화택으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극락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석문몽환가>에서는 몽환세계와 극락을 대비하고 있다. 여기서 몽환세계는 이 작품의 앞부분에서 ‘몽환세간 탐착말고 일체세간 천만사가 몽환일줄 꼭밧어서’라고 하여 천만사가 있는 일체 세간이 바로 몽환세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지옥이나 삼계, 몽환 세계는 모두 중생이 머무는 공간의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왕생가류 불교 가사에서는 이들 세계를 모두 극락세계와 대비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죽어서 가는 지옥은 물론 살아서 고통이 계속되는 삼계나 현실도 모두 이상 세계인 극락과 대비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고통이나 무상이 없는 극락세계는 죽어서만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살아서도 당연히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이상 세계로 그려진다.

(9)에서 <조선서왕가>에서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여 이 사바 세상 두 가지 유형의 인물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의 이어진 내용에서 수 없는 악한 사람이 염불하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끌려가 고통을 당한다는 전체로서 세속의 두 가지 유형의 인물을 대비하였다.⁸⁾ 그런데 대부분은 세속 인물의 두 유형을 상호 대비하기보다는 부처와 중생을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권염불문>을 보면 ‘삼세제불과 늑도중생’을 대비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는 마음을 아는가 저버리는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부처와 중생이라는 인물 대비가 <천혼왕생극락가>에 오면 먼저 법왕과 제자의 대비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세존’이라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퍼는 것으로 작품을 시작하고 있다.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서편에 있을 극락을 소개하고 가기를 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작품이 진행되면서 ‘아미타 대성존’과 ‘중생’의 관계로 대비 인물의 형상이 바뀐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실체는 부처와 중생의 관계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이 왕생가류 불교 가사에는 인물의 대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속의 선인 악인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대비는 염불을 권하기 위한 전체 정도로 가볍게 사용되었다면 중생과 부처라는 대립축이 중심을 이룬다. 정황에 따라 삼세 제불과 중생을 대비하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라고 하면서 아미타불과 중생을 대비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물의 대비는 스승인 부처가 제자인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제

8) 그 외에 이 세상의 미련한 놈과 지혜자(<권왕가>)를 대비하기도 한다.

도의 핵심이 바로 염불을 통하여 공간 대립에서 부각된 극락세계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10)에서는 실천해야 할 행위의 대비를 보이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권왕가>에서는 행해야 할 행위로 참회를 事懺과 理懺⁹⁾로 나누어 대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참의 개념이 존재의 본질이 공함을 살피서 罪福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사참은 구체적으로 지은 죄를 존상 즉 불보살 앞에서 참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양자를 대비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문맥으로 보면 사참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참과 사참을 삼보전에 참회한다'는 말 자체가 그러하고, 이어서 이참의 의미를 상세하게 말하면서도 '이는 실로 이러하나 사상으로 불연하다'고 하여 '삼보의 신력이 아니시면 죄를 잊지 소멸할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귀신에게 비는 것'과 '염불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 병이 무거울 때 귀신에게 빌지 말고 죽는 자를 만나거든 염불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음 <육갑염불가>에서는 『월장경』¹⁰⁾이라는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계행수도'와 '염불'이라는 수행 행위를 대비하고 전자를 통해서만 득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나 후자를 통하여 극락을 간다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대비를 통하여 강조한 실천 행위로는 크게 참회와 염불이 주종을 이룬다. 참회 안에서 본질을 성찰하는 이참보다는 삼보에 의지하는 사참을 더 권장하고 수행 방법상에서도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는 것보다 염불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분명하게 했다.

지금까지 이원 대립적 대상으로 나타난 중심 내용이 공간과 인물,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들 작품은 삼계나 세속, 지옥의

9) 法の 無性을 觀하여 罪福의 相을 잊는 것은 理障을 破하여 理懺이 된다. 身口意가 지은 것으로 하나하나의 法度에 依하여 尊像을 對해 過罪를 彼陳함은 事障을 破하여 事懺이 된다. (『理懺』韓國佛敎大辭典, 5卷, 同編纂委員會, 483쪽)
 10) 『大方等大集月藏經』의 略名. 高齊의 那連提耶舍 譯역. 『大集經』六十卷 中에 第四十六부터 五十六의 月藏分 十一卷임. 월장은 보살의 이름. 月藏菩薩은 西方에서 와서 方等의 妙理를 說한 사람(『月藏經』韓國佛敎大辭典, 5卷, 同編纂委員會, 105쪽).

대립 공간인 극락, 중생과 제자와 악인의 대립 인물로서 삼세제불이나 아미타불, 이참이나 수행에 대립적인 염불을 내세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염불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극락이라는 이상 공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왕생가류 불교가사'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권유의 내용을 따름으로써 왕생가류 불교 가사는 정서적으로 有漏樂이 아니라 無漏樂¹¹⁾을 얻게 되며, 주린 배가 포만하고 마른 목이 해갈이 되며¹²⁾ 無常함이 常住함으로 전환되는¹³⁾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염불 왕생의 효과를 대조적 이원적 세계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2) 일원 지향의 내제성

구체적 현실의 모습을 대립적으로 드러내고 교화를 위한 방안을 사용 하기는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원대립의 두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말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작가의 의도가 이들 왕생가류 불교 가사의 이면에 고루 내재해 있다. 수많은 대립과 사연의 소 개가 마침내는 여기에 이르기 위한 긴 여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일원적 세계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11)자성외에 극락업고 극락외에 자성업네
 내마음이 아미타요 아미타가 자성일세 -중략-
 한방안에 일천등불 광명각각 편만하되 서로서로 거립업네
 이마전지 이르오면 사바극락 돌아니요

11) 有漏는 번뇌의 異名. 煩惱의 事物을 含有하였으므로 有漏라함. 一體世間의 事體는 모두 有漏法이 되고 煩惱의 出世間의 事體를 여의는 것은 모두 無漏法이 된다 (『有漏』韓國佛敎大辭典, 5卷, 同編纂委員會, 147쪽). 이 표현은 <조선서왕가>에 보이는데 쉽게 말하자면 세간의 즐거움은 유무락, 출세간 혹은 극락의 즐거움은 무무락이라는 의미이다. 세간의 즐거움은 상대적이라서 즐거움에 반드시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국면이 따르지만 출세간의 즐거움은 절대적이라서 즐거움만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교시를 따르던 무무락을 얻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2) <권왕가>, <천혼극락가>.
 13) <권왕가>.

<권왕가>
 마음뵈게 극락업고 극락뵈게 마음업서
 <석문의범본동환가>
 동공발심 대원으로 허송세월 하지안코
 <학명선사왕생가>
 (12)자성불을 모셨건만 어느날에 차자불가
 <조선가요집성본서왕가>
 범부성인 따로업서 처처극락 현전하고 염립미타 출세로다
 <권왕가>
 세속범부 마음이오 제불성인 마음이라
 턴지면목 돌아닌네 집착하면 길닿으오
 <용성선사왕생가>

(11)에서 <권왕가>를 보면 자성이 바로 극락이라고 하고 자성은 바로 아미타이며 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사바와 극락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본질의 차원에서 자성과 극락, 공간적 차원에서 사바세계와 극락세계가 하나라는 것이다. 이원적 세계가 아니라 일원적 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염불 삼매에 들면 얻을 수 있는 결과로서의 세계인을 '염불 삼매 성취하야 전후삼매 근처지고 인아사상 문어지면 십만억토극락세계 자심중에 낫하나고'라고 하여 매우 논리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자성과 공간, 또는 사바와 극락 두 개의 공간이 하나라는 것을 말한 것이 <권왕가>라면, <석문동환가>에서는 마음과 극락을 일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음뵈게 극락업고'라는 말은 마음이 극락이고 극락이 곧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 개념인 극락이 바로 마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명왕생가>에서도 '유심정토'라고 하여 마음이 바로 극락정토임을 말하고 있다. 하루바삐 아미타 불을 염불하면 유심정토가 현전한다는 것을 위 인용문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즉 형상 없는 자성이나 마음이 바로 극락이라는 공간과 일치한다고 하여 공간의 차원에서 일원적 세계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12)에서 <조선서왕가>에서 자성불이라는 표현을 하여 자기의 성품이 곧 부처라는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 앞부분의 언급에서 '일생이 얼마관대 염불한번 아니하고 세간만 탐착하야' 자성불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찾지 않는가라는 한탄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성품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염불의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권왕가>에서는 凡夫와 聖인이 따로 없다고 하여 이 둘이 본래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 (11)에 인용한 <권왕가>와 같은 전제 아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12)의 <권왕가> 인용 부분이다. 즉 <조선서왕가>에서 전제한 자성불을 있고 있다가 염불을 거침으로써 범부와 성인이 일치하는 일원적 세계가 실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용성왕생가>에서는 이런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범부와 성인이 모두 마음으로 귀결되어 친진한 면목은 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집착을 하면 길이 달라진다고 하여 범부와 성인이 나누어져 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범부와 성인이 모두 마음이라서 하나라는 일원적 세계 인식 역시 이 인용문 앞에서 '어서어서 넘볼하여 왕생극락 하올적에'라고 하여 염불이 전제되어 있다. 즉 이 작품에 보인 범부와 성인이 마음이라는 기준에서 하나가 되는 것 역시 염불을 통하여 마음을 맑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말하고 있다. 인물과의 관계에서 중생이 곧 부처라는 핵심적인 말을 한 것이 바로 인용문 (12)라고 할 수 있는데 양자가 하나가 되는 데는 역시 마음이 개재해 있다. 마음을 쓰기에 따라 하나가 되기도 하고 둘이 되기도 하지만 본래는 하나이며, 이 하나라는 것이 염불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앞절에서 다른 수행법과 대비하여 염불이 우수하다고는 했지만 부처와 중생을 근본적으로 다른 두 존재로 나누어 놓고 염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님을 명쾌하게 드러냈다. 마음, 극락, 부처가 하나이며 특히 범부와 성인,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것은 염불 수행의 전제이면서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어서 이원 대립적 세계관의 이면에 일원적 세계 인식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 염불가류 불교 가사에 나타난 세계인식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을 삼고자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불교가사에서 왕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작품들을 왕생가류 불교가사라는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작품이 표현 방식이나 세계인식 상에서 공유한 특징의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해 보았다.

먼저 표현 방식에서는 문장 사용과 수사법 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법상의 문장들이 사용된 정황을 살펴보았는데 평서문은 불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생의 모습이나 불교의 교리, 중생의 귀의 대상인 부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말할 때 사용했고, 의문문은 질문하는 일반 의문문이 아니라 반문과 수사의문문이 중심이었는데 중생의 한계나 그 귀의처인 부처를 칭송하고, 수행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그리고 감탄문은 무상함의 괴로움을 한탄하거나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찬탄하는데 주로 사용하였고, 청유문이나 명령문은 극락이라는 이상 세계로 나갈 것을 권유하거나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말도록 명령할 때에 주로 사용하였다. 서법상 다섯 가지 문장 가운데 의문문과 감탄문을 전체 문장에서 각각 30% 가까이 가장 많이 사용하여 공부정의 세계를 강조하거나 정서적 충격을 주고 평서문은 불교 교리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사용했고, 청유문과 명령문은 이상 세계로 함께 나갈 것을 요청하거나 그러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 덕목을 실천하도록 명령하는데 주로 사용했다.

그리고 수사법의 사용 실태를 논의해 보았는데 왕생가류 불교 가사 작품에 가장 두드러진 수사법이 대조법이고 다음으로 비유법, 병렬법 등이 많이 구사되었다. 대조법은 세간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 하열심과 아만심 등의 대립항을 표현하는 데도 일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주로 세간과 출세간 즉, 사바와 극락의 가치를 대조적으로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사바와 극락, 중생과 부처 등의 대립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양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주로 대립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비유법은 세속 현실의 무상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잠, 달팽이 뿔, 화살 등과 같은 비유적 용어를 빌려 사용했다. 미망을 잠에, 인생과 시간의 무상함을 달팽이 뿔이나 화살에 비유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유형의 작품들은 유사한 사실을 반복하여 병렬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왕생곡>에서는 몸이 무상하다는 증거를 같은 문장 구조를 나열하여 보여주기도 하고, <육감원불가>에서는 지옥의 여러 가지 종류를 단락 단위로 나열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권왕가> 경우에는 극락에 온 사람이 극락에 오게 된 연유를 여러 단락을 반복하여 말하기도 하여 단락 수준에서 병렬법을 구사하였다. 즉 부정적이 사례와 긍정적 사례를 다양하게 반복하여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 것의 실상을 깊이 이해시키고 세뇌하여 독자도 하여금 긍정을 지향하려는 믿음을 갖게하려는 의도를 병렬법으로 구현했다.

다음은 이러한 문장 사용의 방식과 수사법 구사를 통하여 보여준 작가의 세계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대조적인 두 가지 공부정적 세계를 가장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표현 방식을 통하여 주로 표면적으로 부각하고자 한 세계는 실제 사바와 극락으로 대표되는 두 대립항이다. 부분적으로 사바세계 내의 사항들을 대립항으로 나타내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사바와 극락세계의 대립이 중심이다. 대립항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핵심 요소들의 대립을 당연히 수반하고 있었다. 사바와 극락이라는 배경 공간의 대립에 중생과 미타라는 인물 형상의 대립, 세간의 탐착과 염불 수행이라는 행위의 대립이 함께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대립에 부수하는 효과로서 유투락과 무투락, 굶주림과 포만, 목마름과 해갈, 무상함과 상주함이라는 각종 현상의 대립을 동시에 보여 주기도 했다. 이런 이원 대립의 세계 인식은 사바의 부정적 세계를 거부하고 주로 염불을 통하여 극락이라는 긍정적 세계를 지향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와 연관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왕생가류 불교 가사는 염불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바 세계에서 초월적 극락 세계로 가게 하는 단순한 내용일 듯한데 실제 그렇지

않았다. 이원대립의 차원에서 사바를 버리고 극락을 지향하는 길모습을 보여 주기는 하였으나 염불을 지극하게 하면 사바가 극락이고 중생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바와 극락,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이런 일원적 세계 인식의 기반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가 나타나 있다. 자성불을 스스로 모시고 있었는데(<조선서왕가>) 이것을 잊고 있다가 염불을 하게 되면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던 사바와 극락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다(<권왕가><석문몽환가><조선서왕가><용성왕생가>). 따라서 사바와 극락으로 대표되는 이원대립적 세계 인식의 기저에는 사바가 극락이고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일원적 세계 인식이 근원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것이 왕생가류 불교 가사에 나타난 세계 인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왕생가류 불교 가사가 표현 방식과 세계 인식의 기준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로써 불교가사 다른 유형의 작품들도 각기 고유한 특성을 보여 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 가사의 각 유형은 각기 특별한 불교의 종교적 국면과 연관되어 있고 각 국면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여한 유형별 불교 가사는 그 유형만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왕생가류 불교 가사 작품들이 염불을 통한 수행을 추동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극락에 이를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현세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하겠다. 이원적이면서 일원 지향적 세계 인식을 보여 주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 또 다른 불교 가사 하위 유형을 확립하고 연구를 진행하면 불교라는 종교의 다양한 국면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불교가사의 구체적 성격을 더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만공, 『만공법어』, 만공문도회, 1982. 1-310쪽.
 경허, 『鏡虛法語』, 경허성우선사법어집간행회, 인물연구소, 1981. 1-747쪽.
 釋惺牛, 『鏡虛集』, 『韓國佛敎全書』第十一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3. 587-701쪽.
 고봉원묘 원저, 고우 감수, 전제강 역주, 『선요』, 운주사, 2006. 1-240쪽.
 김길상, 『고승법어』(1), 흥법원, 2007. 1-415쪽
 김종진, 『불교가사의 연행행과 전승』, 이회, 2002. 1-362쪽.
 김주곤, 『한국불교가사연구』, 집문당, 1994. 1-317쪽.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저, 『경허·만공의 선풍과 법맥』, 조계종출판사, 2009. 1-313쪽.
 대혜종교 원저, 고우 감수, 전제강 역주, 『서장』, 운주사, 2004. 1-439쪽.
 윤원광, 『만공큰스님』, 우리출판사, 2006. 1-303쪽.
 이상보, 『한국불교가사전집』, 집문당, 1979. 1-527쪽.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1-1155쪽.
 정 휴, 『고승평전』, 우리출판사, 2000. 1-286쪽.
 조남현, 『개화가사』, 형설출판사, 1978
 태 진, 『경허와 만공의 선사상』, 민족사, 2007. 1-219쪽.
 강건기, 『수심결의 체계와 사상』, 『보조사상』제12집, 보조사상연구원, 1999. 9-47쪽
 김경집, 『만공의 선학원 활동과 선풍 진작』, 『경허·만공의 선풍과 법맥』, 조계종출판사, 2009. 133-170쪽.
 김종진, 『불교가사의 유통사적 고찰』, 『한국문학연구』제2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0. 153-168쪽.

김종진, 「불교가사의 口演과 주제구현방식의 관련양상」, 『국어국문학』 제130집, 국어국문학회, 131-156쪽.

박해당, 「만공의 삶과 그 의미」, 『2007만해축전』하, 불교시대사, 2007. 165-190쪽.

전제강, 「백용성 불교 가사에 나타난 담화 방식과 대상 인식의 구도」, 『어문학』 제103집, 한국어문학회, 2009. 221-252쪽.

전제강, 「학명의 불교 가사에 나타난 선의 성격과 표현 방식」, 『어문학』 제107집, 한국어문학회, 2010.3. 187-218쪽.

전제강, 「만공 선사 불교 가사의 유기적 상관 맥락과 담화 방식」, 『어문학』 제109집, 한국어문학회, 2010. 9.

조동일, 「19세기 가사에서 전개된 종교사상 논쟁」, 『고전시가론의 이념과 표상』 임하최진원박사정년기념논문총, 1991. 610-631쪽.

투고일 : 2011년 1월 10일, 심사 : 2011년 1월 17일~ 2월 11일, 게재확정 : 2월 15일
--

<Abstract>

A study on the Buddhist Gasa style of going to Nirvana[往生歌類 佛教歌辭]

Jeon, Jae-Gang

This dissertation is written in order to research for the way of the expres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gnition in Buddhist Gasa style of going to Nirvana[往生歌類 佛教歌辭].

Firstly, in the aspect of the way of the expression, I debated the sentence and the rhetoric which being used in the Buddhist Gasa style of going to Nirvana. Five kinds of sentence - a declarative sentence-interrogative sentence-exclamatory sentence-imperative sentence-propositive sentence - all were used in the Buddhist Gasa of going to Nirvana style. A declarative sentence-interrogative sentence-exclamatory sentence among them were functioning to confirm, emphasize, impress readers it true each other, the facts that the Buddhist Gasa style of going to Nirvana expressed. Imperative sentence-propositive sentence among them were functioning to order the readers to practice the Buddhist precepts or to produce the readers to go to Nirvana altogether.

In the rhetoric, there were used three kinds of tools mainly in the Buddhist Gasa style of going to Nirvana: the way of contrast and enumeration, the metaphor. The way of contrast and enumeration were used for emphasizing the bad face and good face of Sava and Nirvana world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the metaphor were used for emphasizing the changeability of Sava world.

Secondly, I researched the writers recognition about the all-being in the Buddhist Gasa of going to Nirvana style. There were found two kinds of recognition about the all-being: The dualistic recognition and the unitary recognition. The dualistic recognition consists of three aspects-The Sava and Nirvana space, all living and Buddha, desire and chanting. But the basis of the dualistic recognition was the unitary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unitary recognition, the Sava and Nirvana space are one, all living and Buddha are one originally. So if all living chant eagerly, they can realize the facts that the Sava and Nirvana space are one, all living and Buddha are one originally ending up endless happiness.

Conclusively, the way of the expres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gnition in Buddhist Gasa of going to Nirvana style were functioning to make people practice chanting and realize that the Sava space is Nirvana space, they are Buddha with feeling endless happiness.

Even though I studied one of Buddhist Gasa styles in this research paper, there could be the other Buddhist Gasa styles. I might continue researching the other Buddhist Gasa styles next time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The Buddhist Gasa style(佛敎歌辭類型), The Buddhist Gasa style of going to Nirvana[往生歌類 佛敎歌辭], The way of using sentence, The way of rhetoric, The dualistic recognition, The unitary recognition